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45 (2021. 10. 19. 화)

폭풍이 지나간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해 짐 같이 아가페 스쿨도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가 with 코로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저희 방국은 이미 with 코로나를 지나 without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이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 ㅎ 시노팜이 대거 들어와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고 사망자도 한 자리 수로 줄고 일일 확진자는 오히려 한국보다 적습니다. 저역시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두려움은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잘 이용하고 있고요. ㅎ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빠른 속도로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물가는 치솟고 있네요.

아가페 현 상황

1. 입원 퇴원을 반복하던 라킵과 모리엄이 최종 퇴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9 월 14 일(화)에 라킵이, 9 월 16 일(목)에 모리엄이 퇴원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께 주님의 기쁨이 함께 누리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병실 침대에 목을 높여 누워있는 라킵 -
침대 곳곳에 묻어있는 이전 환자의
핏자국은 제가 닦는 걸로... ㅎ
이젠 퇴원하니 농담이 나오네요...

2. 새로운 아이들 네 명이 왔습니다.

1) 아가페 스쿨 - 따하(남-심한 자폐)/ 살만 2(널서리에 살만 1 이 있어서... 남-자폐)



따하 - 언어장애와 대소변을 못가립니다.
(기저귀 착용) 갑자기 뛰어나가 반드시 옆에
누가 있어야 합니다. 무표정이었던 아이가
많이 밝아 졌어요.



살만 2 - 울면 경기를 해서 제일 걱정했는데
전혀 울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스스로 먹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살짝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아이입니다.

2) 아가페 널서리 - 마이샤(여-심한자폐)/아라팻(남-뇌병변)



마이샤 - 몸의 균형을 못잡아 비틀비틀 걷는데 무엇보다 걱정은 음식을 삼키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면만 먹인다는데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라팻 - 언어장애와 손 근육이 많이 뒤틀려서 밥을 뭉쳐서 손에 올려주고 그 손을 입에 갖다 대어줘야 합니다. 똑똑하고 학교를 좋아합니다.^^

3. 새로운 교사가 왔습니다.(위 오른 쪽 사진에 아라팻에게 밥먹이고 있는 교사)

이름은 샬로미 - 기독교 인이구요. 예쁘고 엄청 젊어요. 20 세인데 결혼했습니다.

수습 기간이어서 한 달은 각 반에 들어가 수업을 참관하고 배우며 장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모의 수업을 시켜 보고 면담한 결과 처음엔 못하겠더니 지금은 재미 있다고... 학교 근처로 이사까지 왔네요.

4. 10 월 9 일(토) 교사 회의를 했습니다.

매우 부족한 교사들인데도 문득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가르치면 해보려 하고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정 방문부터 전화 방문까지 아이들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어서 저는 더 바랄 게 없네요. 물론 수업의 질을 더 높여야 하는 과제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관심 갖는 것이 제 눈에는 제일 고맙게 보이네요.



회의 시작 전 아직 오지 않은 교사들을 기다리면서 플래시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1년 6개월 동안 정상 수업을 못해서 아이 개별 학습 목표를 점검하고 게임, 만들기 등 수업 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직접 해보는 시간들 입니다.

5. 새로운 홈매니저와 홈 마더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 2 월이면 손뚜스 할아버지가 근속 10 년이 되고 연세도 70 이 되셔서 은퇴를 하셔야 해서 후임자를 구해야 합니다. 한 부부 인터뷰를 했는데 기독교인이고 사람도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 일과 우리 급여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6. 홈에 라미아와 살만(둘이 남매)이 새로이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집이 멀고 엄마가 두 아이를 리샤에 태워 데리고 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드디어 엄마가 결단을 하고 아가페 홈에 맡기고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데리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외국으로 일하러 갔는데 가기전 부터 둘째 부인을 얻어 라미아 엄마한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에, 무지에, 무너진 가정에...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가난과 무지는 그렇다치고 아버지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7. 샤미이 센터에서 넘어져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잇몸이 아프고 붓고가 반복되어 항생제를 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일단 X-RAY 를 찍었는데 잇몸에 피가 고여 그렇다며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안타까워 한국에 계신 치과 원장님께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진 찍어 보내드린 X-ray 를 보시고는 바로 신경 치료를 해야 하고 충치로 거의 없어진 어금니 발치까지 너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많은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어 물어 한 치과 병원을 알게 되어 그곳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세운 치과 병원이더군요.

8. 널서리 라킵은 이제 밥을 으깨서 야채와 생선 고기도 조금씩 먹이고 우유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밥을 삼키는데 여전히 시간이 걸리지만 이전에 비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촉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널서리의 점심시간은 거의 북새통~~~

안 먹겠다고 울고 뱉어내는 아이, 못삼키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이고 나면 그때에야 스텝들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위의 녀석들은 ㅋㅋ 완존 범생들~~~(무람, 살만 1, 라킵)

9. 스텝 세 명을 제외하고 모두 백신을 맞았습니다.

몸살, 그리고 힘이 빠지는 경험들을 했지만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갔고 나머지 세 명 중 2명도 예약 완료했으며 한 명(라킵 엄마)은 출생신고서가 없어 맞지 못하고 있으나 이렇게 저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10. 라킵 누나 사만나는 학교에서 오전 10시 30분이면 집에 옵니다. (방국은 1일 정규 수업이 2~3시간 정도) 다 큰 여자 아이를 혼자 집에 두기가 안심이 안되서 저희 센터에 와서 3시까지 공부하고 널서리가 끝나는 시각에 라킵과 라킵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당분간 12월까지 이 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공부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싫다고는 안하니 다행입니다.

11. 라킵 엄마도 보기와는 다르게 일을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손바닥을 감지해서 사진이 찍힌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젠 제가 폰만 꺼내면 다들 모여들어 손바닥을 치켜 듭니다.



아가페 스쿨의 점심시간은 제일 조용한 시간 ㅎㅎㅎ
맛있게 먹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위- 새롭게 리폼(?)한 식탁: ㅎㅎㅎ 긴 의자에 예쁜
색칠을 해서 식탁으로 변신

원-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ㅋㅋ 우리 빌랄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와서는 *을 흘리고 다니던 녀석이 이젠
 화장실 간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게임 시간에
 자기가 찬 공이 물병을 쓰러트리자 스스로
 좋아서 박수를 쳐요.... 제일 잘 웃는 귀요미



매일 아침 출석 부르는 시간~~~ 어떻게들 아는지 다음이 자기 차례임을 알고 손을 미리
 들어주는 센스~~~ 사벨 이녀석... ㅎㅎ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샤밌의 치과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올바른 치료를 받아 속히 나올 수 있도록...
- 2) 라킵이 엄마와 함께 널서리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누나도 함께 지내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로 라킵은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임을 확신합니다. 그 가정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당교사 리빠가 천천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3) 새로 온 아이들(따하,살만 2,마이샤,아라팻)이 잘 적응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4) 새로운 교사(살로미)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 좋은 홈 매니저와 홈 마더가 연결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 라킵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부탁드립니다. 누나 사만나에게 지혜 주시어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라킵 엄마에게 건강 주시어서 라킵을 잘 돌볼 수 있도록...
- 7) 아이들과 스텝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8) 아이들의 무너진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 되기를 원합니다. $\pi-\pi$
- 9)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속히 그리고 엄청나게 응답되고 있는지 저는 놀랄 뿐입니다. 저의 생각 그 이상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10)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곧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도록...

다시 찾아 온 평온함이 몹시도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강을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행 19:8)

바울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갑니다.
그 자체가 담대함입니다. 제겐 그러한 담대함이 부족한데 우리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담대하구나.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도하고 식구들에게 식기도 하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저의 담대함 대신 우리 아이들을 담대케 하십니다.
이번 금요일에 한 M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순종하여 전할 뿐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